

알투베, 4년 연속 실버슬러거 수상

MLB 공식 홈페이지 발표... '괴물 신인' 애런 저지 첫 수상

메이저리그(MLB)의 '작은 거인' 호세 알투베(27·휴스턴 애스트로스)가 4년 연속 실버슬러거를 수상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지난 10일(한국시간) 포지션 별로 최고의 타격을 선보인 선수에게 주는 실버슬러거 수상자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아메리칸리그 2루수 부문 수상자는 알투베였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이다.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 후보로도 거론되는 알투베는 올 시즌 타율 0.346을 기록해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 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펼쳐진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1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호세 알투베가 3개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상대로 내셔널리그 외야수 부문 실버슬러거로 이름을 올렸다.

스) 조지 스프링어(휴스턴)·지명타자=넬슨 크루스(시애틀)

◇2017 메이저리그 실버슬러거 수상자 명단

▲ 내셔널리그 포수=버스터 포지(샌프란시스코)·1루수=폴 골드슈미트(애리조나)·2루수=대니얼 머피(워싱턴)·3루수=놀런 아레나도(콜로라도)·유격수=코리 시거(다저스)·외야수=지안카를로 스탠튼(마이애미) 마르셀 오수나(마이애미) 찰리 블랙먼(콜로라도)·투수=애덤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

/뉴시스

또한 204개의 안타를 쳐 아메리칸리그 최다안타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선수들이 뽑는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올해의 선수에 등극한 알투베는 실버슬러거까지 품에 안았다. 신인 최다 신기록인 52개의 홈런을 때려낸 '괴물 신인'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도 생애 첫 실버슬러거를 받았다. 이외에 저스틴 업튼(LA 에인절스), 조지 스프링어(휴스턴)이 아메리칸리그 외야수 부문 실버슬러거 수상자로 선정됐다. 콜로라도 로키스의 놀런 아레나도도 내셔널리그 3루수 실버슬러거를 품에 안았다. 아레나도는 3년 연속 골든글러브와 실버슬러거를 동시에 수상하며 공수에서 최고의 3루수로 인정받았다. 올해 59개의 홈런을 때려낸 지안카를로 스탠튼(마이애미 말린스)도 예

300억 대작 '신과 함께' 해외 103개국 선판매

김용화 감독의 신작 '신과 함께'가 해외 103개국에 선판매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신과 함께'가 아메리카 필름 마켓(AFM)에서 미주·오세아니아·유럽 등 90개국에서 선판매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를 최대 기대작인 이 영화는 앞서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열린 아시아 필름 마켓(AFM)에서 아시아 13개국에 판매된 데 이어 이번 90개국에도 팔려 총 103개국 선판매리는 쾌거를 거뒀다.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동명 웹툰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저승에 온 망자가 저승 삼차사의 인도를 받아 49일 동안 일곱 지옥에서 재판 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항기 등이 출연한다. 국내에서는 독특하게 제1, 2편으로 나눠 개봉한다. 1편은 오는 12월20일, 2편은 내년 여름에 개봉할 예정이다. 제작비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신과 함께'는 이번 아메리칸 필름 마켓에서 앞서 아시안필름 마켓에서 공개했던 12분 하이라이트 영상보다 늘어난 총 27분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해 해외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한국적 세계관을 반영한, 신선하고 감동적인 드라마와 배우들의 호연, 저승 세계를 구현한 신선한 비주얼 등에 바이어들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와 훌륭한 특수효과가 눈에 띈다.

1, 2편을 모두 배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태극 배급사), "영화의 이야기는 물론 액션, 판타지, 드라마 장르의 조합까지 마음에 든다. 특히 특수효과가 인상 깊다. 유일무이한 작품인 것 같다(중남미 배급사), "이주 특별한 영화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빨리 영화를 보고 싶다(북미 배급사) 등 격찬하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전했다. 특히, 이번 선판매된 국가 중 북미와 아시아 10개국은 제1편을 국내와 같은 시기에 개봉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도 이제껏 해외 판매된 국내 영화로서는 쉽게 받아보지 못 한 대접이라 이 영화에 해외 배급사들이 거는 기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뉴시스

트와이스 '라이키', K팝 걸그룹 최단기간 5천만뷰 돌파

지난 5월 'TT' 뮤비 조회수 2억뷰 돌파
8월 '치어업' 뮤비로 2억뷰 넘어서며 K팝 여가수 최초 2억뷰 뮤비 2개 보유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라이키(Likey)' 뮤직비디오가 K팝 걸그룹 사상 최단기간에 유튜브 조회수 5000만뷰를 넘어섰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음원 발표와 함께 유튜브에 선보인 '라이키' 뮤비는 공개 약 9일 16시간만인 이날 오전 10시 5000만뷰를 돌파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쯤 K팝 걸그룹 사상 최단기간에 4000만뷰를 넘어선 데 이어 사흘만에 1000만 조회수를

더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데뷔곡 '우아하게(OOH-AHH하게)'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억뷰를 돌파하며 K팝 걸그룹 사상 최초 2억뷰 뮤비 3편 보유 및 세계 걸그룹 중에서도 3번째로 이 기록을 달성한 팀이 된 트와이스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총 6개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0억뷰도 넘어섰다. 트와이스는 지난 5월 'TT' 뮤비로 K팝 여가수 사상 최초로 유튜브 조회

수 2억뷰를 돌파한 데 이어 8월 '치어업' 뮤비로 또다시 2억뷰를 넘어서며 K팝 여가수 최초로 2억뷰 뮤비를 2개 보유한 기록을 썼다. 또 '우아하게'부터 '치어업', 'TT', '낙낙(KNOCK KNOCK)', '시그널(SIGNAL)'까지 모든 활동곡 뮤비가 1억뷰를 기록해 '5연속 1억뷰 돌파'라는 신기록도 세웠다. JYP는 "이제 '라이키'로 6연속 1억뷰 돌파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뉴시스

2018 러시아월드컵 공인구 '텔스타18' 공개

2018 러시아월드컵 공식 공인구가 공개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0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월드컵 공인구 '텔스타(Telstar) 18'를 공개했다. 아디다스가 개발한 이 공인구는 1970년 멕시코월드컵에서 첫 선보인 '텔스타'를 되살렸다. 텔스타는 당시 멕시코 월드컵이 세계 최초로 위성 생방송된다는 의미를 담아, 전세계 사람들이 월드컵을 접했던 '텔레비전의 스타'라는 의미에서 텔스타라는 이름을 얻었다. 흑백 텔레비전이 상용화되던 당시, 아디다스는 화면 속에서 공인구의 존재감을 발휘하고자 흑백



'클래식의 귀환' 알려 컬러만 사용한 디자인을 차용했다. 아디다스에 따르면 이번 텔스타 18은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의 공인구 브라주카의 혁신적이었던 축구공의 기본 골격이 되는 틀을 살린 채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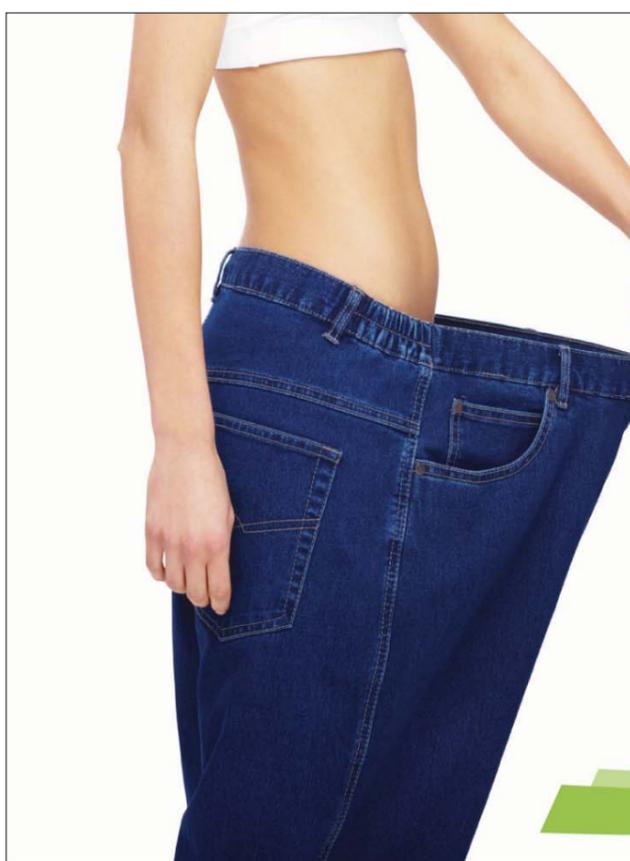
퍼포먼스를 극대화했다. 이번 텔스타18의 패넬은 총 6개의 다각형 모양의 패넬로 구성됐다. 또한 공인구 최초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근거리무선통신(NFC) 칩이 장착되는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텔스타18은 세계적 선수들의 기량에 맞추기 위해 수 많은 테스트를 거쳐 완성됐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와 같은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팀은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 등 유럽 명문 클럽 팀도 공인구 테스트 과정에 함께 했다. /뉴시스

김혜수·이선균, 25일 청룡영화상 공동 진행

배우 김혜수(47)와 이선균(42)이 올해 청룡영화상을 공동 진행한다. 10일 영화상 사무국에 따르면, 김혜수와 이선균은 오는 25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제38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맡는다. 이로써 김혜수는 1994년 이후 24년

째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선균이 청룡영화상 MC를 맡는 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최근 개봉한 영화 '미옥'에서 호흡을 맞췄다. 김혜수는 "올해도 어김없이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맡게 돼 기쁘다"며 "이선균씨와 함께하는 이번 시상식 무대

가 더 멋진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균은 "시상식 진행은 처음이다. 매우 설레고 기분 좋은 긴장감이 든다"고 했다. 올해 청룡영화상은 25일 오후 8시45분 SBS TV를 통해 생중계 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